양현석 10억 기부 재단 설립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제2578호 www.metroseoul.co.kr

지금 극장가 '19금'으로 후끈

박 대통령 원전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열린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행사에 참석, 만수르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과 양국 주요인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통3사 '합법적 공짜폰' 공세

단말기 출고가 인하카드…공격 마케팅 나서
출시 제품 요금제 약정할인 땐 보급형 0원

이동통신 3사가 20일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하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재개에 맞춰 삼성전자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갤럭시S4 액티브, 피처폰 SHW-A301S, LG전자 옵티머스 LTE3, G2, 옵티머스 G프로, 팬택 베가 아이언 등 단말기의 출고가를 2만7500~37만1800원 인하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제조사들과 협의해 단말기 7종의 출고가를 우선 인하, 20일부터 판매하고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 갤럭시S4, 갤럭시 윈, 갤럭시 그랜드1 등 4종에 대해서도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출고가 인하로 보급형 휴대전화 대부분의 구입가격이 10만원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급형 휴대전화 역시 시장에서 20만~3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역시 이날 옵티머스 G프로, G2, 베가 아이언 등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데 동참했다. 앞서 KT는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27일과 28일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의 출고가를 절반 가량 인하했다. 이에 지난 4일 팬택 베가 시크릿 업의 출고가도 낮췄다.

KT는 이 같은 출고가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단독 영업기간에 갤럭시S4 미니, 옵티머스GK, 아이폰5, 베가 시크릿 업 등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LG전자 3G 신규 스마트폰 'L70'도 20만원대의 가격에 내놓으며 25만명 가량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영업정지 기간 15만명 가량의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긴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 10만명에 순증한 셈이다.

KT 관계자는 "단독 영업기간 번호이동 고객 중 출고가 인하와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에 가입비중이 40%를 넘는다"며 "향후 삼성전자 갤럭시S4, 갤럭시S4 LTE-A(16·32GB), 갤럭시노트3, 갤럭시 그랜드 등 5종의 단말기도 출고가 인하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활성화 기대

LG유플러스도 영업재개에 맞춰 LG G2, 옵티머스 G프로, 베가 아이언 등 4종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20일부터 적용했다. 현재 갤럭시S4 LTE-A(16G·32GB), 갤럭시S4, 갤럭시 노트3, 갤럭시 윈 등 5종도 출고가 인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출고가 인하금액 외에 추가로 가이드라인 내 보조금을 적용받으면 베가 아이언은 10만원대에, LG Gx와 옵티머스 G프로는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요금제에 따른 약정할인을 받으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대부분이 공짜폰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업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영향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가 그동안 얼어붙었던 통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칫 시장 과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통과로 고객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합법적 공짜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출고가 인하 적용 제품이 기존 출시된 제품으로 제한된 만큼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sc4[illegible]@metroseoul.co.kr

등록된 외국인 100만명 돌파

우리나라의 등록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등록 외국인 수가 101만204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단기체류자 36만9390명과 거소신고자 25만6506명을 합하면 전체 체류외국인은 163만9909명에 달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의 3%를 넘는 수준이다.

등록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무역경영(D-9) 등 체류 형태가 다양하다.

국가별로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등록 외국인 수는 ▲2003년 43만7954명 ▲2006년 63만1219명 ▲2009년 87만636명 ▲2012년 93만2983명 ▲2013년 98만592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윤다혜기자 yd[illegible]

심각한 여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화재 대피 어려워

감사원 "수도권 45개 역 피난로 부실…고속철 관리도 소홀"

수도권 지하철 45개 역의 승강장이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돼 있는 등 안전 대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상대로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지하철 역 중 약구정로데오 강남구청 공덕 서현 정부과천청사역 등 45개 역 승강장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됐다. 이 때문에 역사 안에서 화재나 테러 등이 발생할 때 승객들이 쉽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동식 피난계단 같은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경부고속철도 시험구간인 충남 오송읍 산동3교 등 4개 교량에 지진대비 보강공사를 하면서 품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공업체는 공단의 방지 속에 전수 품질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62개 지진격리받침 중 단 9개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채 공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민간 건설사와 865억원 규모의 '수도권고속철도 제8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터널 두께를 얇게 하도록 설계 변경을 신청하자 전문가 검증 없이 이를 수용했다.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알고도 그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 담합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공분만 쌓는 공영방송 KBS

기자 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KBS가 휘청하고 있다.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도국 부장단의 일괄 사퇴와 KBS 기자협회의 제작거부로 방송이 파행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서 비롯됐다. 세월호 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하는 발언으로 사임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청와대 보도 개입을 폭로하며 길 사장의 사퇴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길 사장이 "발언이 과장 왜곡 됐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금의 KBS 사태는 책임의식 결여로 빚어진 문제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떠올리게 한다. 청와대의 개입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추후 정확히 판명나야겠지만 KBS가 지금껏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세월호 사고 유족은 쌓인 분노를 김 전 보도국장의 발언을 계기로 터뜨렸고,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렸다. 길 사장은 이 때문이라도 직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에 선 청와대는 침묵으로 내용에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결백 증거 제시든 과오 인정이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지금 반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건 세월호 관계자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KBS의 고위 책임자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물 담배도 7월부터 세금 물려

머금는 담배와 물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오는 7월2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 물 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 /조현정기자

"마지막 한명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 35일째인 20일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병언 일가 서초구 부동산 압류

8곳 시가 200억대…"채권확보 절차 추가 진행"

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소유 토지와 부동산을 대거 압류했다.

서울 서초세무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유 회장 장남 유대균(44) 지명수배)씨 명의의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토지 1705㎡(약 400평)과 건물 등 부동산 8곳에 대해 압류등기촉탁신청을 했다고 검찰이 20일 밝혔다.

이는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이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압류된 부동산은 염곡동 74-2번지(912㎡), 90-9번지(360㎡), 90-2번지(363㎡)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96-3번지(296.2㎡) 등 총 600평에 이르는 토지 3필지와 염곡동 90-10번지 건물, 강남구 역삼동 빌딩 사무실 2곳 등이다. 압류 부동산은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300여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경우 총 피해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압류 이후에도 유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추가 압류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jkim@

뉴스&뉴스

후보자 선거비용, 인터넷 실시간 공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일 후 30일부터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 비용을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성매매 등 중대범죄 제보 최고 1억 포상

● 정부가 20일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된다.

"해경·'해피아' 관리들 총체적 부실"

여야 본회의서 비난 봇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2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정부의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사건 당일 오전 9시7분 최초 교신 이후 세월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교신이 끝이지는 9시38분까지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세월호 같은 연안여객선은 에어포켓 생성 가능성이 낮음에도 해수부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며 "에어포켓에 대한 믿음이 적극적 구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배선 직전의 배를 들여와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선주, '해피아'라 불리는 전 현직 관리들, 우왕좌왕하다 초동대처에 실패한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유병언 영장심사도 불출석

금수원 강제진입 임박 · 구원파 신도 수백명과 대치중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1000억원대 횡령·배임과 100억원대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관련 회의를 열고 구인영장을 토대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구인영장을 반납하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법원에 유씨의 잠적 가능성 등을 설명한 뒤 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16일에도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유씨는 현재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다.

검찰은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40개 중대 3000명을 동원해 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강제진입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역시 검경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안팎 경계를 강화했다.

검찰은 유씨와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선준기자 rejoan@metroseoul.co.kr

금수원 모여드는 신도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이 검토되는 가운데 20일 오전 유 전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모여들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의 꿈 담긴 '차일드 팟' 20일 오전 서울 중구 조폭우산 어린이재단 발달원에서 '차일드 팟(Child Pot)' 대형화분 제막식이 열렸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을 세싹 모양으로 형상화한 조형물인 '차일드 팟'은 새싹이 자라려면 햇볕과 물 등이 필요한 것처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나서서 위험요소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 함정서 성추행 잇따라

장교 구속 · 함장 보직해임

해군 함정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됐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경기경찰청장 등 사과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일 0시 10분께 안산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정보형사들의 사찰 의혹에 대해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정보형사)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며 "(적발 당시) 당황해 유족에게 신분을 숨긴 직원들은 잘못한 것으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것이지 사찰이나 미행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산단원경찰서 구장회 서장도 6차례 고개를 숙여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안산단원서 소속 정보형사 2명은 전날 오후 7시 21분께 전남 진도에 희의차 내려가는 희생 가족대표단이 전북 고창군 한 휴게소에 저녁식사를 하러 들른 사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들을 알아본 한 유족에게 적발됐다. /윤다혜기자 yd@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

박성구 신부 "오웅진 수사해야"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박성구 신부와 작은예수회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배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신부는 이날 "8월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기 위해 다음달 2일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으로 출국할 계획"이라며 "음성 꽃동네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지 않으면 8월16일 교황의 꽃동네 방문은 세계적인 망신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수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이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농조합을 이용해 전국 요지의 땅을 매집해 투기를 한 혐의다"라며 "부동산 재벌 오웅진 신부 역시 이와 같은 사례다.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운조합 전 이사장도 횡령 혐의

검찰 자택 압수수색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 등을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윤다혜기자 yd@

버스에 연료절감장치 부착

서울시가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을 위해 저상버스를 제외한 수동변속 CNG버스 4000여 대에 연료절감장치를 부착해 향후 5년 내로 버스 연비를 기존 대비 15%까지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총 7485대다. 이 중 4494대(60%)인 수동변속 CNG버스는 자동변속인 저상버스와 달리 운전자의 운행습관에 따라 연비 차이가 크다. 시는 전문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 동안 CNG연료비 절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 영등포구가 저소득 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공공근로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간은 7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이며 사업은 ▲정보화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이다.

도봉구, 해충 포충기 설치

서울시 도봉구는 모기 등 해충 매개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친환경 해충 포충기 5대를 발바닥공원에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충기는 공원 소등 및 점등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된다. 유효 면적은 약 500㎡에 달한다.

구로구, 계량기 정기검사

서울시 구로구는 거래의 공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관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이동식 측증기,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 등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다.

첨단장비 갖춘 도박단 검거

약품처리 '목카드' 기본 …특수카메라·수신기·몰카까지

카드 패를 알아볼 수 있는 특수카메라와 초소형 음성 수신기,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특수 첨단 장비를 동원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이모(4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심부름꾼 김모(4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사기도박 장비를 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도박꾼 박모(41)씨 등 속칭 선수 3명을 동원해 도박판을 벌여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수약품이 처리돼 상대방의 패를 읽을 수 있는 일명 '목카드'를 도박에 사용했다. 천장 카메라로 비추면 도박장 옆 모텔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상대방 패를 판독해 극소형 특수수신기를 낀 동료에게 이를 알려주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도박장 관리를 했으며 박씨 등 3명은 몸속에 장비를 숨기고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로 활약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서 익산시 동산동의 한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리고 사기도박을 벌여 진모(34)씨 등 4명을 끌어모아 1억1000만원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기도박 장비 판매업자에게 첨단장비를 250만원에 구입한 뒤 도박장소와 장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은 큰 돈을 딸 수 있다는 헛된 기대감 때문에 사기 도박판에 빨려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기도박 장비 제조 판매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조기자 edkim@metroseoul.co.kr

전북 익산경찰서가 20일 오전 특수장비를 이용해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일당에게서 압수한 무전기, 극소형 특수수신기, 특수카드, 몰래카메라 렌즈, 특수모니터 등을 공개했다. /뉴시스

온 힘을 다해서 울산소방본부는 20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 체력 평가를 했다. 소방관들이 온 힘을 다해 배근력기를 당겨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 나간 경찰…음주운전에 절도

세월호 참사 분위기로 공직사회 기강이 강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절도 등 간부급 경찰의 범법행위가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46)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중구 충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A경위는 알고 지내는 40대 여성 두 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이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지갑을 뒤져 모두 18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15일에는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B(47) 경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불구속 입건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도다혜기자 ydh@

6년간 수술보조물 넣고 살았다니…

50대 女, 산부인과 의사 고소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수술보조물을 몸속에 넣은 채 6년이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07년 9월 울산시 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김모(55·여)씨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 수술 당시 김씨는 근종이 장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근종을 제거받지 못한 채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잦은 복통에 시달렸고,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학병원을 찾은 김씨는 "몸속에 수술 보조물이 들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자궁 수술 때 의료진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름 4cm, 높이 3cm 가량의 원통모형 보조물이 몸 안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보조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만 자궁제거수술을 받기까지 총 4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다. /김보준기자 mjkim@

서울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2배로

서울시가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간호사를 어린이집으로 보내 영아들의 집단 발병을 예방하고 신체를 주기적으로 검진해주는 서비스를 지난해 950개소보다 2배가량 많은 1800개소에서 올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사들이 가정 어린이집에만 방문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도 방문한다.

현 인원이 10~39명인 시설 중, 민간 어린이집은 만 0세 어린이가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은 0세 어린이가 5명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다.

시설 방문 서비스는 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소속의 전문간호사 63명이 담당한다. 건강 이상을 발견하면 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학부모가 요청하면 병원을 연계해준다. /김민준기자

방송대-셈웨어, MOU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교내 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업체 셈웨어와 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대는 공학 교육에 필요한 셈웨어7.5를 첨단공학부의 메카트로닉스 교과목과 사이버랩 강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한 후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셈웨어에 전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도움을 주고 공학 인재 양성과 교육체제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방송대는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첨단공학부를 개설했다.

스마트창작터 설명회 개최

한성대학교 스마트창작터는 22일 교내 에듀센터에서 창업팀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스마트창작터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자로 선발되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앱분야의 경우 최고 3000만원, 융합분야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appnm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교생 전공체험교실 열어

서울여대는 최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4회 슈가 오픈 캠퍼스 고교생 전공체험교실'을 개최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전공 분야의 교수로부터 강의도 듣고, 체험활동 시간도 가졌다.

사단급 전군순회 인권교육

국방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육·해·공군 사단급 부대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각 군 사령부 및 군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순회 인권교육은 올해 사단급 부대로까지 확대됐다.

교육 내용은 지휘권과 인권의 상호보완 관계 와 장병 인권보장의 가교로서 간부의 역할 등이다.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시작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은 올해로 3번째다. /조현정기자

태국 군부 계엄령 선포

쿠데타 아니라지만 사실상 실권 장악…재총선 연기될 듯

태국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군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의 계엄령 선포가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과도총리 대행이 이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계엄령 선포가 현 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쿠데타에 준한 것이라면 친정부 진영으로부터 큰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은 시위 사태가 격화함에 따라 치안 유지를 위해 선포됐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쁘라윳 짠-오차 육군 참모총장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총격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군이 나설 수 있다"며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지속되며 정정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헌법재판소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권력남용으로 해임했다. 이후 반정부 시위대는 중립적인 인물을 선정해 새 과도 총리로 임명하겠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반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정부 시위대가 새 총리 임명과 과도 정부 구성을 강행하면 맞불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정국 위기가 깊어지면서 재총선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조기 총선이 무효가 돼 7월 20일 재총선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2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경찰청 앞에서 한 여성이 군인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모그 방지 '피에로 마스크'

metro HongKong

네티즌 "웃기게 생겼다"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시 교통경찰이 최첨단 스모그방지 도구를 착용해 화제다.

최근 중국은 심각한 스모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스자좡의 공기오염지수는 전국 1위다. 교통경찰은 매일 도로 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스모그 등의 유해 기체에 직접 노출돼 있다. 이에 베이징의 한 회사가 스자좡 교통경찰을 위해 총 10만 위안(약 1650만 원)에 달하는 공기정화기를 기부했다.

이 스모그방지용 공기정화기를 이용하면 미세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행인이나 운전자와 대화할 때 불편함이 있는데 이 도구는 그런 문제가 없어 일정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기존 스모그방지 마스크와 달리 밀폐형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과 면적을 최대로 넓혔다.

하지만 이 공기정화기에 큰 단점이 하나 있다. 마치 피에로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것. 많은 네티즌은 "교통경찰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 웃기게 생겼다", "이런 경찰을 바라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겠나"며 비웃었다.

/정리=조선미기자

"월드컵 반대"…괴한 대사관 습격

metro Brazil

최근 베를린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독일 언론과 대사관 직원에 따르면 복면을 쓴 네 명의 일당이 돌멩이 수십여 개를 대사관 건물로 던졌다. 이로 인해 건물의 전면 유리가 모두 파손됐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괴한들의 테러 행위는 브라질 월드컵에 반대하기 위한 시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했으며 돌을 던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지가 담긴 인쇄물이나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정체를 밝히지 않은 조직이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은 게시물에서 브라질 정부가 월드컵에 필요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했으며 마지막 문장을 '월드컵은 없을 것이다'라고 끝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동성애자 취업할 때 불리?

metro Mexico

지난 17일은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이었다. 멕시코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멕시코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직장 내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ND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자 가운데 35%가 직장에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0%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14%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용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동성애자는 원주민과 함께 멕시코에서 가장 박해받는 그룹 중 하나로 꼽혔다.

/제시카 카스타녜다스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푸틴에 반항하는 우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하이 공항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리는 도중 갑자기 우산이 뒤집히자 경호원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 한다. /AFP 연합뉴스

러시아 재벌 이혼 위자료 4조6000억

스위스 법원 지급 판결…"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스위스 법원이 프랑스 축구구단 AS모나코의 구단주인 러시아의 거부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에게 사상 최고액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네바 1심 법원은 19일(현지시간) 리볼로블레프가 전처인 엘레나 리볼로블레바에게 45억9만 달러(약 4조6157억 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엘레나에게 딸 안나(13)의 양육권과 함께 취리히 그슈타트에 있는 주택과 제네바의 부촌인 콜로니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권도 줬다.

엘레나의 변호인은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이라면서 "엘레나가 스위스법에 따라 전남편인 리볼로블레프가 결혼기간 모은 재산의 절반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볼로블레프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볼로블레프는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칼리 공산을 통해 전 세계 79위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현재 그는 포브스 부호 순위 147위다. 재산은 88억 달러로 추정된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2011.28 (-3.86)	코스닥	542.96 (-3.65)
금리	2.85 (+0.01)	환율	1025.00 (+3.20)

뉴스&뉴스

피아제 시계 국내 첫 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오는 25일까지 스위스 시계 브랜드 피아제의 '알티플라노 38mm 900P'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제공

금감원, 국민은행 정밀진단

● 금융당국이 내달 말 사상 처음으로 개별은행인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일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놓고 이사회 갈등이 커지자 지난 19일 은행검사국 등 검사역 7명을 급파해 특별 검사에 들어간 데 이어 내달 말 대규모 검사인력을 투입해 국민은행 전체에 대한 경영 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의 전체 분야에 대해 정밀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은행 전체를 정밀 점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돈보다 근무지역이 중요

● 구직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 '근무지역'을 꼽았다.

20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 구직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구직 시 가장 고려하는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근무지역'이라고 답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급여'보다 무려 16.5%나 앞서는 수치다.

직종(16.8%), 업무(11.2%), '하루 업무시간'(8%), '복지혜택'(5.7%), '경력기간'(3.7%)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현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257-2100
독자센터	02)721-9885

2002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64)

황창규 회장 "융합형 기가 시대 연다"

"기가토피아 실현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월 27일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전면에 나서 KT의 향후 경영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황 회장은 20일 KT 광화문사옥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무선이 통합된 기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T를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만들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KT가 제시한 기가토피아는 인간과 모든 사물이 기가 인프라로 연결되고 융합 서비스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활성화로 고객은 물론 산업, 국가 모두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환경과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는 세상을 말한다.

아울러 황 회장은 ▲스마트 에너지 ▲통합 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 관제 등 5개 분야를 5대 미래 융합 서비스로 선정하고 중점 육성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5대 미래 융합 서비스 육성을 통해 ICT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내 중소 벤처와의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기가토피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KT경제경영연구소는 향후 기가토피아를 통한 ICT 산업 전반으로 3만7000개의 일자리와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황 회장은 고객 최우선 경영으로 기술, 상품,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ICT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황창규 KT 회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가토피아' 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발표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그는 지난달 특별명예퇴직을 통해 83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회장은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삼성 출신 임원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 인사 원칙은 첫째도 전문성, 둘째도 전문성, 셋째도 전문성"이라며 "KT를 1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쓰려는 원칙에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5일간 고심해서 수백명의 인터뷰를 통해 뼈를 묻겠다는 전문 인력들을 영입한 것이 지금 9명의 부문장들"이라며 "모두 KT 출신으로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도 없다. 항상 전문성과 글로벌 1등 KT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열사 재편 구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막상 KT 회장으로 와서 보니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면서 "5대 미래 융합서비스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와 KT미디어허브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따로 계열사가 존재하다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은 합병을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차후에 검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관련 최근 계속되는 실적 악화와 관련해선 "과거 문제들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면서 내부 조직이 변하고 있다"며 "단독 영업기간에도 경쟁으로 25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만큼 내년에는 더욱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소주 3파전에 관련주 "취하네~"

무학 강세… MH에탄올·풍국주정도 두각

소주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류 제조업체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특히 소주 원재료를 만드는 주정업체의 고공행진이 눈에 띈다.

소주 시장에서는 주류 업종의 3대 상장사인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무학 중에서 무학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무학은 3만850원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무학이 2010년 7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직후 주가가 5000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년여 만에 6배 넘게 치솟였다.

무학과 더불어 MH에탄올, 풍국주정 등 주정업체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두 업체의 주가는 올들어 2.2배, 1.3배 오른 상태다.

시장에서는 소주 시장이 지역업체의 독과점 체제에서 전국망 체제로 바뀌고 저도주 제품이 늘어날 것이란 점에 기대감을 표했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진로는 충청도에서 경상북도로 영역망을 확장하고 있고 경남 기반의 무학은 오는 4분기 수도권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위 3사의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므로 업체간 경쟁 심화로 소주 소비량이 늘면 주정 수요가 동반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학의 저도주가 수도권에 상륙하면서 소주 시장 전반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정욱 NH농협증권 연구원은 "경쟁사들도 저도주를 내놓으면 소주 수요가 늘어날 뿐더러 원가 측면에서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

이건희 회장 병세 호전

입원 9일만에 중환자실서 VIP실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병세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20일 자료를 내고 "지난 일요일(5월 18일) 설명드린 대로 이건희 회장은 모든 검사결과가 매우 안정적이고, 상태가 많이 호전돼 어제(5월 19일)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밤 심근경색을 일으켜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또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와 진정 치료를 받아왔다.

저체온 치료는 인체조직에 혈류공급이 재개되면 활성화 산소 등 조직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체온을 32~33℃로 낮춰 세포 대사를 떨어지도록 해 뇌·장기 등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법이다. 진정치료는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일정 기간 수면 상태에서 회복하는 치료를 말한다.

의료진은 의식 회복을 서두르기보다 심장과 뇌기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진정치료에 전념해 왔다. 지난 18일 "모든 검사결과가 매우 안정적이고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며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곤기자 kjg@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하라

기업·우리은행… 관련 서비스 속속 강화

최근 원 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율이 급락하면 대기업보다 환율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환관리 어려움이 커지자 시중 은행들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무료 환리스크 관리시스템인 'IBK 헤지-메신저' 등 이용하면 환위험관리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매월 월별 목표환율 산출은 물론 목표환율을 설정해 시장환율이 근접 또는 이탈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해 주기 때문에 기업별로 맞춤형 헤지 타이밍 관리가 가능하다.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기업고객이면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내려받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메신저는 2012년 출시돼 현재 230여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 인터넷FX선물환거래'도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의 실수요 목적 환위험관리 거래시스템으로서 은행에 나오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쉽고 편하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1500여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선물환의 경우 기업은행 전체 거래의 26.7%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와 지원을 위해 '환율 SOS 제도'를 시행한다. 딜링룸 내 핫라인을 설치해 환율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과의 실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장 경험이 풍부한 외환 전문가가 현재의 외환시장 동향, 향후 환율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품 등에 대해 상담한다.

찾아가는 연수와 1대 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외환 확성 아카데미를 개최해 환리스크 관리 방법, 주요 환헤지 상품에 대한 무료 연수를 실시한다. 기업에서 요청시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현황 컨설팅과 개별 기업에 적합한 1대 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환리스크 관리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우리도 영업 재개했어요" SK텔레콤은 20일 영업 재개를 맞아 1월드 손손점에서 스타벅스 프로모션 행사를 열었다. 박우 이장재(왼쪽서 첫번째)와 곤지현(왼쪽서 세번째), 윤원희 마케팅부문원(왼쪽서 네번째)이 이날 1호 개통 고객에게 스타벅스를 전달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재미동포타운 1군 건설사 외면

보증 부담 크고 국내법 적용 어려움 때문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치른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이 최근에야 비로소 시공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애초 시공순위 10위권 내 국내 유수의 대형사들이 거론되다 최종적으로 지방의 중견사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149번지 일대 조성되는 재미동포타운 시공사가 A업체로 확정됐다. 지방에 거점을 둔 알짜배기 중견사지만 최근까지 협상을 벌인 B·C등과는 회사 규모면에 차이가 있다.

재미동포타운은 송도국제도시 8만724㎡ 부지 위에 2017년 6월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기타 부대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9700억원에 이르러 계획 단계서부터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많았고, 내로라하는 건설사 몇 곳과도 협상을 벌여왔다.

해당 부지를 시행사 KAV1에 매각한 안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재미동포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재미동포타운으로 만들자는 시행사의 제안이 먼저 있었다"며 "송도국제도시의 콘셉트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을 시작하게 한 이 독이한 콘셉트가 굴지를 좋리던 1군 업체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아파트 사업의 경우 땅값은 땅을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PF대출을 받고, 건축비는 계약금과 계약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중도금 대출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그런데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이 같은 구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

경제청 관계자는 "재미동포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힘들고, 국내법 적용이 안 되다 보니 계약금만 포기하고 중도 해지도 할 수 있다"며 "시공사가 5000억원에 이르는 땅값 및 건축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고 말했다.

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껄끄럽다는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와 향후 입주하는 아파트가 100% 일치할 수 없는데 재미동포들의 경우 그 부분은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귀띔했다.

사업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보증을 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A사가 주축이 되겠지만 대형건설사도 단순시공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시공 도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D·E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k@

영국 뮤지션들의 숨결 느껴봐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유니버설뮤직 그룹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리즈코너 내에서 럭키스 코어를 열고 퀸, 비틀즈, 롤링스톤즈 등 영국 대표 뮤지션들의 유명 도서, 의류 등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노래방 카드소비 곤두박질

세월호 참사 여파…보험 승인은 증가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유흥, 레저 활동 등 비필수재 카드소비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카드승인금액은 47조16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600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도 5.2% 증가에 그쳤다.

특히 지난 4월 중 레저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세월호 발생 전인 15일까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했으나 16일을 기점으로 하반월 3.8%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일반음식점(13.4→8.4%)과 의류(5.4→4.3%), 골프장(17.2%→-2.4%), 레저타운(27.5%→-31.0%), 노래방(7.8%→-0.0%)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애도 분위기로 필수소비재가 아닌 업종에서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은 감소했다"며 "소득요건 개선과 4월말 황금연휴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소비 자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여객선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16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에 그쳤다.

이는 교통관련업종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인 12.9%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4월 상반월 41.8%에서 하반월 -29.9%로 무려 71.7%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도서지역 여행 관련 소비가 위축된 것.

반면 보험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1조3200억원으로 상반월 -39.9%의 낮은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을 보이다가 하반월 3.5%로 상승 전환됐다.

이는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보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전체카드 승인금액 대비 체크카드 승인건수의 비중은 3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전체 카드결제에서 3번 중 1번 이상이 체크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경기자 @

고가-저가 아파트 가격차 '최저'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지난달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가아파트 가격은 내린 반면 저가아파트 가격은 오르면서 간격이 좁혀진 것이다.

20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4.5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은행이 이 조사를 시작한(2008년 12월)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첫 조사가 이뤄진 2008년 12월만 해도 5분위 배율은 8.1이었지만 이후 매년 7.9→6.9→5.7→5.1→4.6으로 하락했다. 올해 3월까지 4.6을 유지하다 지난달 0.1 내려 최저점을 찍었다.

이는 고가아파트 값이 조금씩 하락하는 사이 저가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선옥기자

LG제습기 1000만대 판매

LG전자가 전세계 제습기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

LG전자는 1986년 제습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8일 기준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제습기 1000만대 판매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다.

사업 초기부터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을 동시 공략한 결과 유로모니터 소매 제습기 판매 기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2002년 업계 최초 전자제어 제습기, 2004년 30ℓ 대용량 제품, 2009년 국내 최초 신발건조 호스 적용 등 시장선도 기술을 연이어 선보였다.

올해는 국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에어컨 브랜드인 '휘센'과 지난 30년간 에어컨에 적용해 온 인버터 기술을 제습기 제품에 확대 적용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등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재용기자

프로게이머 은퇴하면 뭐 하나?

홍진호 예능계 접수·임요환 포커 선수 전향

전 스타 프로게이머 홍진호가 JTBC 새 예능 '크라임 씬'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한때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던 프로게이머. 하지만 이들이 몸담고 있는 e스포츠 팀이 거듭 해체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프로게이머의 위상과 인기도 예전같지 않다.

그럼에도 홍진호와 같은 스타 프로게이머들이 방송계에서 종횡무진하면서 새삼 이들의 새로운 직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진호는 tvN의 토크쇼 '로맨스가 더 필요해', JTBC의 예능 프로그램 '크라임 씬' 등에서 입담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tvN의 추리 예능 '더 지니어스' 시즌 1에서 우승하며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이후 예능 프로에 잇따라 캐스팅되면서 방송인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홍진호와 함께 부의 TV 나들이가 잦았던 임요환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SK텔레콤의 프로게임단 T1에서 감독을 지낸 임요환은 프로 포커 선수로 변신했다.

지난 1월 첫 세계 대회에서 8위를 차지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던 그는 지난 2월 1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시안 포커 투어(APT) 사이드 이벤트' 토너먼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두 번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임요환은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의 성공적인 이직을 신고했다.

김정민, 박태민 등은 온게임넷에서 e스포츠 경기 전문 해설가로 뛴 바 있으며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 '하스스톤' 리그에서도 해설을 하고 있다.

91명의 프로게이머들은 게임 전문방송 아프리카TV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SNS 플랫폼 아프리카TV는 프로게이머 출신의 BJ들을 새롭게 선발하고 화려한 게임 플레이와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게임 전문 방송을 곧 서비스한다.

윤용태, 김명운, 윤하운, 김남훈 등 전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물론 IM게임단, 제닉스스톰 소속의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스타크래프트 1과 2, 리그오브레전드(LOL), 서든어택, 도타2 등 인기 e스포츠 종목을 주제로 방송을 한다.

이용자들은 프로게이머 BJ 특집 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식 리그나 특정 이벤트 외에는 만나보기 힘들었던 스타급 프로게이머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다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4월 신설법인 7226개

두달 연속 역대 최고치

지난달 새로 생긴 회사수가 월간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 신설법인은 7226개로, 3월의 7195개보다 31개 늘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 측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과 정부의 창업지원 강화로 신설법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해 4월 영업일수가 3월보다 하루 많았던 것도 법인 설립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다.

부도가 난 회사는 감소했다. 지난달 부도업체는 69개로 3월보다 4개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도업체가 16개에서 12개로, 서비스업은 30개에서 27개로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 부도업체 수는 29개로 지난달보다 8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도업체가 3월보다 10개 증가한 31개였지만 지방은 52개에서 38개로 14개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22%로 3월의 0.13%보다 상승했다. 이는 이미 도산한 업체들과 동양그룹 소속 기업의 어음부도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특히 강원도의 어음부도율이 21.79%로 컸다"면서 "이 지역 건설업체가 발행한 어음 1700억원 어치가 부도 처리되면서 부도율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김민연기자 minc@

예쁘게 찍어주세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각종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통보만 하는 연봉협상

직장인 꼽은 전시행정 1위

협상 없이 통보로 이뤄지는 연봉 조정이 대표적인 사내 전시행정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20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보여주기 식의 규정과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9%가 '있다'고 답했다.

전시행정의 종류로는 '협상 없이 통보로 이뤄지는 연봉협상'(63.1%·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말 뿐인 정시퇴근 제도'(55.7%), '사용이 어려운 연차휴가'(53.6%), '개인감정이 섞인 인사고과'(42%), '허울뿐인 교육제도'(28.4%), '소수에게 돌아가는 복리후생제도'(27.1%), '목적 없는 워크숍'(2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시행정으로 꼽은 이유(복수응답)는 61.6%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51.3%), '규정은 있지만 사용 시 눈치를 줘서'(50%), '다들 불만족하고 있어서'(36.8%),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1.6%),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적어서'(20.1%)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전시행정으로 인한 피해(복수응답)는 '애사심이나 신뢰도가 낮아졌다'(73.6%), '근무의욕 저하'(71.9%), '이직 및 퇴직 고민'(61.5%) 등으로 나타났다. /이유범기자 leeyb@

차세대 보안리더 키운다

KITRI-블루코트 업무 협약

"사이버 공격 방식이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다. 이에 단순히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조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

20일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은 서울 삼성동 파크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KITRI와 보안솔루션 전문업체 블루코트 코리아는 우리나라 정보보안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교육과 연구 개발 사업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보안 특강, 세미나, 컨퍼런스 등 정보보안 캠페인의 공동 진행은 물론 차세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산업과 연구 과제 진행 등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사이버 위협 후 신속한 원인 조사와 분석, 추적 능력을 통해 사고 대응 수준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김기태 블루코트 코리아 대표는 "이번 교육 과정이 사이버 포렌식의 수준 높은 관련 글로벌 기술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816@

www.nuguna-house.co.kr
누구나집
누구나집이란?
자격조건 無!
도화 누구나 집
임대공급 실시!!

5월 27일(화)~28일(수)
임차인 접수

포르쉐 마칸 데뷔

3종류 모델 출시… 최고출력 400마력
콤팩트 SUV시장서 치열한 경쟁 예고

포르쉐 코리아가 20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뉴 마칸 터보와 마칸 S(사진)를 국내 공개했다. 마칸은 포르쉐가 콤팩트 SUV 세그먼트에서 출시하는 첫 스포츠카로 '모든 세그먼트에서 스포츠카를 생산한다'는 포르쉐 철학을 입증하는 모델이다.

인도네시아어로 '호랑이'를 뜻하는 마칸은 포르쉐 핸들링의 장점을 살려 가속력과 제동성, 엔진 파워, 민첩성과 조향 정밀성을 조합했다.

라인업은 마칸 터보, 마칸 S, 마칸 S 디젤로 구성돼 있다.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인 마칸 터보의 V6 3.6ℓ 바이터보 엔진은 포르쉐 모델에는 처음 쓰이는 엔진. 최고출력 400마력과 최대토크 56.12kg.m의 힘을 발휘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4.8초 만에 도달한다. 최고 속도는 266km/h이며 국내 복합 연비는 7.2km/ℓ와 CO_2 배출량은 250g/km다.

마칸 S에는 340마력과 46.9kg.m의 토크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V6 3.0ℓ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됐다. 마칸 S의 시속은 254km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하는 데에는 5.4초가 소요된다. 국내 복합연비는 7.3km/ℓ, CO_2 배출량은 248g/km다.

6월 출시 예정인 마칸 S 디젤에는 V6 3.0ℓ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 59.2kg.m의 성능을 자랑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 가속까지 6.3초가 걸리며 최고 속도는 230km/h다.

마칸의 모든 모델은 전자제어식 멀티 플레이트 클러치를 갖춘 액티브 사륜구동의 구동방식을 갖췄다.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 시프트 패들을 포함한 멀티 펑션 스포츠 스티어링 휠, 타이어압력 모니터링 시스템(TPM), 파워리프트 테일게이트, 포르쉐 힐 컨트롤(PHC), LED 테일라이트 등이 기본 장착된 사양이다. 또한 에어 서스펜션 탑재도 가능하다.

사이드 뷰 윈도 그래픽과 루프의 경사진 루프라인은 911과 닮아 있다. 메인 헤드라이트의 기본 형태와 앞문과 뒷문 하단의 사이드 블레이드는 918 스파이더의 디자인을 연상시킨다. 기본 장착된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역시 918 스파이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콤팩트한 3차원 디자인과 LED 기술이 결합된 마칸의 테일램프 역시 918 스파이더를 연상케 한다.

국내 판매 가격은 마칸 S 디젤이 8240만원, 마칸 S가 8480만원이며 마칸 터보는 1억 740만원이다.

/[illegible]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오피스텔 '아크로텔 강남역' 246실 분양

한국자산신탁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번지 일대 '아크로텔 강남역'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시공은 대림산업과 삼호가 공동으로 맡았다.

지하 7층~지상 20층, 1개동, 전용면적 17.69~24.77㎡, 전체 470실이다. 이중 246실을 일반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상업시설이, 지상 4~20층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일반분양 오피스텔은 대부분 14층 이상에 배치됐다.

'아크로텔 강남역'이 들어설 강남대로변은 서울 3대의 비즈니스 권역일 뿐만 아니라 각종 학원과도 인접한 곳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 내·외국인 강사, 학원생 등의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테헤란로,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및 서초IC 등과도 가까워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서초구 서초동 1319-10번지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23일 오픈한다. 입주 예정일은 2016년 9월이다. 문의) 1599-7411

/박선옥기자 [illegible]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30% 할인

한라건설이 시공한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잔여분에 한해 최대 30% 특별할인 분양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영종하늘도시 A44블록에 위치한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는 전체 1365가구, 전용면적 101~139㎡로 이뤄져 하늘도시 중 유일한 중대형 아파트다.

올 11월 개통 예정인 공항철도 영종역과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운서역에서 공항철도 이용 시 김포공항까지 25분, 서울역까지 45분 걸린다. 인천과학고를 비롯해 인천하늘고, 미단외국인학교(예정) 등 [illegible] 학군을 갖췄다. 단지는 축구장 5개 넓이의 조경면적을 확보했고, 주차공간을 지하로 설계해 공원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했다. 문의) 032-288-2408

/박선옥기자

취업하려면 컴퓨터·스피치능력 키워라

전경련, 20~30대 직장인 조사… 77%가 "영어 도움 안된다"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직장인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스펙으로 컴퓨터 활용능력과 스피치능력, 업무자격증 등을 꼽았다

전경련(회장 허창수)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들 기업의 20~30대 대졸 직장인 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컴퓨터활용능력(77.5%), 스피치능력(46.9%) 업무자격증(38.1%) 등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영어점수(23.0%) 해외유학경험(10.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경련이 지난해 4월 취업을 위한 스펙 조사에서 영어점수(69.2%) 자격증(64.5%) 학점관리(57.8%)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 능력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54.2%) 내부보고서/발표자료를 잘 만들 수 있어서(36.1%)"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외국계 기업(73.5%)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공기업(59.8%) 금융기관(50.0%) 대기업(49.1%)의 직장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58.2%)이 남성(49.8%)보다 높았다

스피치능력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이들은 상사·외부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53.7%) "업무협의 등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돼서(30.7%)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11.0%)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상사·외부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 라는 응답은 외국계 기업(66.7%) 직장인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54.3%) 공기업(54.2%) 금융기관(23.1%) 순이었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으로 업무관련 자격증을 꼽은 이들은 컴퓨터관련 자격증(42.6%) 직무관련 자격증(39.7%) 제2외국어 자격증(12.1%) 등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교육·IT·유통·운송·숙박은 컴퓨터 관련이, 건설업·금융업·에너지·화학·섬유업종은 직무관련을 가장 선호했다 업종별로 자격증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영어점수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월의 조사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의 '스펙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는 응답자의 69.2%가 취업을 위해 토익 등 영어점수를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어점수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도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53.9%) 가 가장 높았다 영어점수가 높아도 실제 영어실력이 좋지 않아서(20.8%) 영어가 필요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16.9%) 순으로 조사됐다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업무를 한다는 응답자를 기업유형별로 보면 공기업(64.5%)이 가장 높았다 대기업(49.2%) 금융기관(45.9%) 외국계 기업(30.8%) 순이었다 또 남성(49.2%)보다 여성(58.5%)의 비율이 높았다

/송태균기자 kspit@metroseoul.co.kr

삼성 스포츠 마케팅 삼성전자가 6월30일까지 전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염원하는 거실응원에 필수품인 TV 에어컨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S 골드레시 승리의 여름 프로모트 를 개최한다 /삼성전자 제공

경제 5단체, '안전 대한민국' 성금 모금

경제계가 '안전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가 안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성금모금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경제 5단체장은 20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5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회장단은 이날 "최근 세월호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이 재구축돼야 하며 경제계 자원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가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성금 모으기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노후설비 등 안전시설 점검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별·유형별 재난발생 대응매뉴얼의 제작·보급 ▲재난 예방과 대응을 잘하는 선진국 기업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연구 촉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업차원에서도 최고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경제계는 모금된 성금의 일부를 사고유족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과 장학금 지원, 의료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삼성그룹주 시총, 닷새만에 25조 증가

전자-생명-물산 3곳 20조↑ —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삼성그룹주들이 이건희(72) 회장의 입원에도 불구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닷새 만에 25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17곳의 시총은 19일 현재 333조5277억원으로 이 회장의 입원 전날인 지난 9일(308조4167억원)보다 25조1110억원(8.14%)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주력 계열사 3곳의 시총 증가액은 20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기간 133만5000원에서 144만8000원으로 오르면서 시총이 16조6448억원(8.46%) 늘어났다

삼성물산은 6만65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9.7% 상승해 시총이 1조원 넘게 증가했고 삼성생명의 주가는 9만4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12.77% 올라 시총이 2조4000억원 늘었다

호텔신라와 제일기획의 시총도 이 기간 각각 1805억원 690억원 증가했다

17개 상장 계열사 중 14개사의 시총이 늘었다

계열사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크레듀로 38.71%를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호 에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한 3세 경영체제를 지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력회사의 낮은 지분율과 향후 3세간 지분정리, 중간금융지주 등을 감안하면 지주 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지주체제 전환시 신규 순환출자, 자회사간 지분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분 단순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인적분할 대상인 주력 회사의 자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

라이나생명 80세 가입도 OK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공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 상품은 고령자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암보험 상품이다 10년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 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비싼 어학연수 더 이상 가지 마라"

라이언Q 파고다어학원 강사 노하우

해외경험 없이도 영어 마스터 가능
해군참모총장 전담통역 경력이 증명
10개월 1000문장 익히면 입에서 술술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낭비입니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한이 맺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들려준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고개를 내젓기 마련이다. 초등학생까지 어학연수를 떠나는 요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공갈은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파고다어학원 라이언Q(본명 김태원·32) 강사의 조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외 유학 경험이 전혀 없이 국내에서만 영어를 공부해 해군참모총장 전담 통역장교로 3년간 복무한 후 파고다에 입사한지 2년여 만에 '2014년 최우수강사'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여행 경험은 중학교 때 캐나다에서 21일 체류했던 것과 대학졸업여행으로 베트남에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 서울과학기술대 영어과에 진학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상 어학연수는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 '매수 큰 수 백번 봤더니 외국에서 영어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국내파 영어 강사인 정철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 2014년 최우수 강사 선정

라이언Q 강사는 1년을 목표로 하루 15시간씩 영어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영어신문에서부터 미드 시청, 영자신문 해석, 영어 작문, 학원수업 등 계획표를 만들어 미친 듯이 매달렸다. 식사 시간은 물론 샤워하면서도 라디오를 통해 영어를 계속 청취했다. 6개월이 지나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영어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회의 통역 수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서울 인사동 등에서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며 어학연수 못지않은 살아있는 영어를 갈고 닦았다. 덕분에 유명 외국대학 출신을 물리치고 해군참모총장 전담 통역장교로 천안함 사태와 주요 한미 군사회의 통역을 담당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라이언Q 강사의 몰입공부를 따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30일 완성 귀와 입이 트여요' 등과 같은 깜짝 놀랄 만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의 경험을 되돌아봐도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실력이 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 3개월 영어단기과정으로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담당하고 있는 '영어 마스터되기 프로젝트, 마스터 1000문장(마천문)' 강의를 10개월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미를 통해 영어 익혀야

라이언Q 강사는 영어를 무작정 공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충고했다. 예디된 미드를 좋아한다면 '그레이 아나토미'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겨울왕국'으로 영어를 공부하라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인다면 영어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개월 과정인 제 수업을 끝까지 들은 학생들을 살펴보면 끈기는 물론 공부에서 재미를 찾은 경우입니다. 강의를 통해 1000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면 어느 환경에서도 영어로 듣고 말하는 데 막힘이 없죠. 어학연수에 한눈돼 돈은 물론 시간까지 낭비하지 말고 국내에서 재미와 끈기로 영어를 대한다면 누구나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국현기자

라이언Q 강사의 영어 마스터 비법

1. **큰 목소리를 내라** – 작은 목소리로는 절대 영어를 잘 할 수 없다. 어색하더라도 큰 목소리로 따라하다 보면 듣는 것까지 마스터할 수 있다.
2. **휴대전화를 멀리하라** – 영어 공부중에도 휴대전화를 습관적으로 만지작 거리는 학생들이 많다. 공부할 때만큼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3. **복습은 기본** – 영어 실력을 쌓으려면 예습 보다는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복습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4. **위기의식을 가져라** –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어 정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몰입해야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가죽공예, 취미 넘어 매력 일터

서승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가죽공예 ⑧

영화 '감시자'에서 주연꿈 정우성이 들고 다니던 가방은 유명 브랜드 가방일까.

"조인성 주연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최근 모노톤 인테리어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소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기성 제품으로 표현하기 힘든 작품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 영화사, 방송국 등으로부터 주문 요청이 종종 들어옵니다."

문현화(사진)미로아르테 강사는 다소 생소해 보이는 가죽 공예에 대해 "인식만 못할 뿐 우리 주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계기로 가죽공예에 입문하게 됐을까.

"원래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어느 날 압구정 보세 가게에서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적힌 수제 가방을 작하게 봤는 데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당시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그가 하는 일은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 번,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재료가 주는 촉감을 온전히 느끼며 가방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다. 하지만 국내 가죽공예 시장은 너무 열악했다. 결국 발품을 팔기로 했다.

"품질 높은 가방을 만들고 싶었지만 정보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외국 서적, 동영상, 논문을 찾아보며 가죽, 가방의 역사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7개월을 보낸 후 서류가방을 만들었고 시행착오 끝에 2달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20대 초반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취미로 가죽공예를 배우러 온다"며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는 30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덧붙였다.

그가 추구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100%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베지터블 가죽은 시간이 흐르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도 가죽의 자연스러움, 멋스러움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sh814@

채용박람회 외국계 기업 참여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지역 16개 관계기관, 고용우수·외국계 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1500여 명을 채용한다. /연합뉴스

영어말하기 시험 고민 이젠 끝!

허니비즈HRD '오픽열차' 눈길

영어 말하기 시험인 '오픽(OPIc)'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픽 전문 교육 업체 허니비즈HRD(honeybizhrd.com)는 대학생·직장인들을 위한 '오픽열차'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오프라인 교육 과정인 '오픽열차'는 고속열차처럼 학습자가 단기간에 목표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자체 제작 교재 '매직 스토리(Magic Story)'를 통해 학습자들이 최신 오픽 출제 유형을 익히고 실제 시험에서 접하게 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오픽열차' 수료 후 정기 오픽 시험에서 목표 등급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받거나 원하는 등급을 얻을 때까지 다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국현기자

엔제리너스커피, 차별화된 커피로 '인기몰이'

독특한 로스팅과 다양한 메뉴 등 신개념 커피로 주목

최근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커피업계에서는 원두의 품질과 로스팅 기법을 앞세운 차별화된 커피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수많은 커피 전문점들 사이에서도 특히 신선한 원두와 차별화된 메뉴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퓨어로스팅 기법을 사용해 신선함을 살린 풍부한 향의 커피맛과 '스페셜 아메리카노' 등 특별한 커피 메뉴로 커피마니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엔제리너스커피의 첫번째 인기 비결은 최상급 원두와 차별화된 로스팅 공법으로 신선함을 살린 프리미엄급 커피 메뉴라는 것. 생두의 입고부터 로스팅된 원두의 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했으며 각 공정 및 유통과정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최상급의 원두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최적의 생육환경에서 자라 엄격하게 선별된 엔제리너스커피의 원두는 '퓨어로스팅 시스템'으로 로스팅해 달콤한 향기와 중후한 바디감, 다크 로스트의 산뜻한 산미와 조화로운 향을 지닌 엔제리너스만의 커피로 탄생한다.

이 기법은 공기 중에 원두를 가볍게 띄워 기계 안의 뜨거운 공기만으로 원두를 볶는 로스팅 방식으로 탄 맛이 적고 원두 고유의 아로마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매일 갓 볶아낸 원두는 전국 단위로 구축된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전국 엔제리너스 매장에 주 3회 이상 배송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신선함이 살아있는 엔제리너스커피를 즐길 수 있다.

또 엔제리너스커피는 최근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물과 커피농도를 조절해 마실 수 있는 신개념 커피인 '스페셜 아메리카노 2종'을 선보였다. 천연 미네랄 워터 '에비앙'과 깔끔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탄산수 '트레비'가 콜라보레이션을 해 트렌디함은 물론 제품 경쟁력까지 강화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페셜 아메리카노는 '키스 오브 엔젤'과 '키스 오브 트레비' 총 2종의 아이스 제품으로 구성됐다. 키스 오브 엔젤은 프랑스산 고급생수인 에비앙의 순수함, 키스 오브 트레비는 탄산수 트레비의 청량감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주문 시 진한 에스프레소 더블샷이 담긴 아이스컵과 에비앙 혹은 트레비를 별도로 제공해 취향에 따라 커피농도를 조절해 즐길 수 있다.

엔제리너스커피 관계자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추구하며 건강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를 위해 세련된 커피를 즐기며 나만의 특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스페셜 아메리카노 제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스페셜 아메리카노 제품 군을 확대해 소비자의 고급화된 입맛과 취향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철기자 sman@metroseoul.co.kr

'매운 라면' 열전…매운맛 TOP 10

맵게 더 맵게~기존제품은 리뉴얼까지 다양

최근 라면업계의 매운맛 경쟁이 심상치 않다.

강렬한 매운맛을 즐기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라면업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매운 라면을 출시하거나, 기존제품을 더 맵게 리뉴얼하는 등 매운 라면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매운 라면의 점유율은 전체 라면시장 대비 59.3%포인트로 라면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팔도는 지난 3월, 비빔면류 제품 중에 가장 매운 '팔도 쫄비빔면'(2769 SHU)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팔도비빔면'(357 SHU)보다 8배나 더 매운 제품이다. 지난해는 농심 '진짜진짜' 라면과 오뚜기 '열라면' 등이 더욱 맵게 리뉴얼됐다. 이처럼 매운 라면시장을 선점하려는 라면업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 출시된 라면 가운데 가장 매운 라면은 어떤 제품일까? 각 라면업계에서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팔도 측이 이들 1위에서 10위까지의 제품을 서열화했다.

매운맛 순위는 고추류에 포함된 캡사이신의 농도를 스코빌 단위로 계량화해 표시한 스코빌지수(SHU, Scoville Heat Unit)를 사용했다. 청양고추의 경우 4000~1만 SHU, 한국의 보통 고추는 4000~7000 SHU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팔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틈새라면빨계떡'이 8557 SHU로 청양고추에 버금가는 매움을 자랑하며 이 부분 왕좌에 올랐다. 이마트의 도전하바네로라면(5930 SHU)과 오뚜기 열라면(5013 SHU)이 각각 2, 3위에 랭크됐다.

다음으로는 ▲불닭볶음면(4404 SHU) ▲진짜진짜(4000 SHU) ▲하바네로짬뽕(3960 SHU) ▲남자라면(3037 SHU) ▲팔도쫄비빔면(2769 SHU) ▲신라면(2700 SHU) ▲농낙볶음면(2588 SHU) 순이었다.

특히 국물 없는 라면시장의 성장도 매운맛을 강조한 제품들이 이끌고 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팔도쫄비빔면', '농낙볶음면'이 매운 라면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천현철기자

식음료 업계, '누드 콘셉트' 제품 인기

시원함 강조… 20~30대 젊은 층 공략 나서

식음료 업계가 여름철을 맞이해 거추장스러운 것을 빼내고 있다. 누드 디자인을 표방한 패키지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먼저 화려한 컬러의 보틀과 라벨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던 주류들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보틀의 색감이나 라벨 등을 배제시킨 누드 형태의 제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20~30대 젊은 애주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위스키 '더 클래스'는 투명 보틀에 라벨을 과감히 뺀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매끄럽게 떨어진 투명한 형태의 보틀에서는 어느 한 요소 튀지 않는 색감으로 누드를 연상시키며 세련되고 젊은 느낌을 준다. 코카콜라 하이디첸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시보어 파웰'의 디자이너 닐 허스트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라고 한다.

맥주 제품 가운데도 라벨 없는 디자인의 제품이 있다. 뉴질랜드 맥주 '엔지 퓨어라거'는 라벨을 없애고 녹색병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 제품은 뉴질랜드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보리와 물로 만들었고 색은 맑고 투명한 황금색을 띤다. 적당한 양의 조밀한 거품에 강하지 않은 탄산이 깨끗한 맛을 낸다.

'간치아 피니파리나' 와인도 라벨 없이 의 연명만을 표기한 누드보틀 디자인의 제품이다. 자동차 페라리 디자인으로 유명한 피닌파리나 사가 작업했다. 이 외에도 '누드와인'이라 불리는 '셀라엠'이나 보드카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엡솔루트'도 누드보틀로 인기다.

주류뿐만 아니라 잼류 제품도 누드보틀이 등장했다. 복음자리 '수제123 베리&마말잼'은 투명한 유리병에 블루베리잼, 딸기잼, 유자 마말레이드 3가지 잼을 한 병에 담아 만들었다. 층층이 쌓여진 각기 다른 종류의 잼이 고스란히 드러나 제품이 더욱 부각된다. 이 제품은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대전에서 특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현철기자

소년에서 남자로, 소녀에서 숙녀로

스무살 성년맞이 · 깔끔·풋풋함 연출 팁

은은한 색상에 튀지 않는 스타일 좋아

만 20세가 되는 해를 축하하며 성인으로 인정받는 성년의 날은 스물살 소년 소녀들에게 특별한 날이다. 성년이라는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가짐과 행동도 조금은 어른스럽게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스무살의 풋풋함과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고자 할 때는 은은한 파스텔 계열 색상이 가미된 재킷을 입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이 재킷은 성숙한 분위기를 내는 동시에 '컬러재킷' 특유의 단정함과 자유분방함을 연출할 수 있어 청바지, 티셔츠 등 캐주얼한 복장에도 어긋나지 않게 매치할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초여름 날씨에는 린넨 소재의 재킷을 입어 시원하게 연출하는 것도 좋다.

카라를 세워 입거나 카라의 몸체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소매 안쪽 색상을 다르게 해 접어 입으면 포인트로 연출할 수 있다.

체크무늬 패턴이 적용된 컬러재킷도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좋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소년에서 남자로 스타일 변신을 하는 데는 정장만한 게 없다. 20대 초반 남성들은 슈트를 한 번 마련해두면 면접, 결혼식 등 격식이 필요한 중요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두루 활용할 수 있으니 활용도가 높은 기본 클래식 슈트가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성의 경우, 갑자기 전혀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옷을 입는다면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어색해지기 마련이다. 과한 옷차림은 피하고 평소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거나 계절에 맞는 세련된 아이템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포인트 스타일링이 아직은 서툴다면 캐릭터 등이 가미된 비교적 단순한 것부터 손을 써보는 게 좋다.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니 가장 이 같은 크롭톱 티셔츠로 실루엣을 강조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아직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기 때문에 덧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한 시기다. 환절기 유용한 아우터로는 가벼우면서 깔끔한 디자인에 여유있는 크기의 재킷이 좋다.

단색의 단순한 셔츠는 소매를 걷어 입을 경우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활력있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어 많은 여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제품이다.

이번 시즌 주목받는 플라워 프린트는 화사하면서도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포인트 룩으로 좋다고 꾸준하게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다.

특히 원피스는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 아이템 하나만으로 손쉽게 로맨틱한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20살다운 섬그러움을 연출하기에는 꽃 무늬가 적용된 화사한 원피스가 단연 손꼽히는 이유다.

/김학철기자 kimcf@metroseoul.co.kr

비타민C, 간단히 보충하세요!

휴대·복용 편리한 동아제약 '비타그란' 인기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작용을 한다. 또 기미 주근깨 예방 및 피부미백,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며 면역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 게다가 괴혈병, 결체조직의 이상, 복통증, 골절,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반드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100㎎인데 비타민이 100% 흡수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에 따라 하루에 500~1000㎎ 정도의 비타민C씩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습관 및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증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등을 꾸준히 먹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간편하고 쉽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C 보충제가 각광받고 있다. 그중 동아제약의 '비타그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으로 비타민C 분말·정 제품과 고함량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분말은 1포당 비타민C 500㎎을 함유하고 있어 알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1정당 비타민C 100㎎으로 제조된 비타그란 정 제품은 씹거나 녹여 먹을 수 있다. 사과·포도·레몬·오렌지 등 네 가지 맛으로 제조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1정당 비타민C를 1000㎎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C 고함량 제품의 경우는 1일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봄철에는 반드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 비타그란은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복용이 편리해 다른한 봄을 이겨내는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보헤미안 룩'으로 가볍고 편하게

샌들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디테일 완성

어느덧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다. 일교차가 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긴 치마와 걷어 입은 티셔츠를 매치한 단순한 패션일지라도 멋스러운 샌들이나 액세서리 하나로 간단히 '보헤미안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보헤미안 룩의 자유분방한 멋을 잘 살려주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는 흔히 술장식으로 알고있는 프린지 디테일이다.

올 시즌 다양한 브랜드에서 프린지 장식이 가미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슈즈 브랜드 캐러멜라는 프린지 디테일과 가죽 매듭 장식이 돋보이는 재즈민 샌들을 최근 출시했다.

발등을 감싸는 프린지 장식이 발랄한 보헤미안 룩 연출에 좋고 고급 가죽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부드러우며 샌들 뒤쪽에 지퍼가 있어 신고 벗기 편하다.

샌들로 발끝 포인트를 살렸다면 손목에 포인트 액세서리를 매치해 룩을 완성해 보자.

주얼리 브랜드 몬그램이 올 시즌 선보인 레이어드 팔찌는 골드 메탈에 화려한 색상의 실 매듭이 더해져 화사한 보헤미안 룩 연출에 도움을 준다. 시계 브랜드 클루이의 스트랩 시계는 화려한 플라워 패턴 장식이 눈길을 끈다.

/김학철기자 kimcf@

부부의 날, 내 남편 '훈남' 만들어볼까

복숭아 뼈 드러나는 슬랙스 팬츠, 화려한 피케셔츠로 포인트

5월 21일 부부의 날만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담아 그 동안 내색하지 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젊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남편을 보며 아내들은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이런 아내들은 내 남편을 훈남으로 변신시킬 패션 아이템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편안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의 티셔츠와 복숭아 뼈가 드러나는 팬츠를 함께 입으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 벨트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면 활동적인 느낌을 더해 어려든 느낌의 남편을 만들 수 있다.

남편이 실용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린넨 재킷과 시원한 줄무늬 셔츠, 좋은 팬츠를 매치해 젊은 감각의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연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활용도가 좋은 피케 티셔츠도 남편들의 훈남 변신에 도움이 된다. 기능성 소재에 색감이 두드러진 셔츠는 편안하게 어디서나 입기 좋고 코디하기가 수월해 남편들이 애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김학철기자

단, 1회 섭취로 1일후 시들한 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
파워엠
프리미엄골드
고급형 신제품 출시
자신있게3일
무료체험
효과없을시
환불!
한의사 한 형 희
남자를 위한 파워엠! 단, 한번만! 섭취해도
24시간후 시들한 남성이 확 바뀝니다!
한번 1회 섭취로
달라진 남성을 확인하세요!.
3일이면 당신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그 효과에
놀라셨습니까?
아직도 1회용
남성제품에
의존하십니까?
더 이상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효과없는
제품에 속지마십시오!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가짜 비아그라제품도, 유사성분이 들어있는 불법제품도 아닙니다
순수한 천연재료만으로 남자를 위해 연구개발하여 만든 안전한 제품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남성들은 당뇨, 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시들한 20~80대 남성이 20대 남성으로 태어난다 단, 1회 섭취만으로도 놀라운 남성력 회복
단, 1회 섭취로 달라지는 남성! 3일후 강한남성으로 탄생!
파워엠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드셔본 분들의 입소문으로 확실한 안전성을 자부하기에
무료체험 3일을 실시하여 효과없을 시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 일반형 : 파워엠
▶ 고급형 : 파워엠 프리미엄 골드
확인해 보십시오!
파워엠 효과!
주문 및 문의전화 1600-6842
당일배송 됩니다

우리집 '숨구멍' 철저하게 관리하자

공기 드나드는 통로 청결 유지 중요

우리 몸에도 공기를 뿜어내는 허파가 있듯이 집 안에도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 공기가 배출되는 숨구멍이 있다. 바로 주방 후드와 싱크대 배수구, 화장실 하수구 등이 가정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공기 통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요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유해물질 또는 배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세균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나 식중독, 노로 바이러스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주방 후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싱크대 또는 화장실 하수구를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방, 공기 오염도 가장 심해

주방은 가스레인지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집안에서 공기 오염도가 가장 심한 공간이다. 때문에 이런 유해물질을 바로 배출시킬 수 있는 주방 후드 사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방 후드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후드에 묻은 기름때가 조리 시 음식물 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주방 후드 전문 기업 하츠의 '후드 휴어'는 요리할 때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후드가 켜지고 알아서 풍량을 조절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바로 배출한다.

◆세균 번식하기 쉬운 싱크대

싱크대 배수구는 높은 습도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악취와 각종 세균, 미생물, 바이러스 등이 번식하기 쉬운 장소다. 따라서 거울철 배수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하지 않도록 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크대 배수구는 망과 덮개들을 분리해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섞은 물로 청소하고 30분 후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간단하게 살균 청소를 할 수 있다. 또 음식물 처리기를 이용하면 음식 쓰레기가 부패하지 않고 악취 없는 처리가 가능하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하수구 오물

대부분 가정 내 화장실은 창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화장실 하수구 속은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기 및 세면대, 타일 주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 곰팡이 번식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변기를 청소할 때에는 변기시트의 부착부분, 변기 바닥과 타일의 경계면 등의 틈새에 낀 오염까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먹다 남은 김빠진 콜라를 활용하면 좋다. 콜라를 오염된 부위에 뿌린 후 어느 정도 두었다가 솔이나 걸레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하수구에서 악취가 심하게 올라온다면 하수구에 막힌 오물을 제거해야 한다. 피죤이 출시한 배수관 세정제 '드필 프리미엄'은 막힌 곳의 오물을 분해하는 것은 물론 배수관의 악취제거, 살균 효과도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치킨동아리가 선정한 최고 치킨집은?

다양한 치킨 정보를 소비자들과 공유하는 연세대 치킨동아리 '피닉스'는 최근 맥주 전문점 94street(94번가)를 연세대 근방의 제일 맛있는 '치맥 맛집'으로 선정했다.

'좋은 치킨이 좋은 대접을 받게 해주자'라는 모토로 탄생한 피닉스는 치킨집을 탐방하면서 '테이스팅 노트'를 통해 치킨집을 평가하고 있다. 94번가는 굽네치킨에서 만든 맥주전문점으로 피닉스는 94번가의 치킨이 연세대 주변 치킨집 중 가장 맛있고 푸짐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94번가는 오븐에 구워 기름기를 뺀 '수제 전통기 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자랑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94번가는 매월 2회 선릉직영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전화(1644-9792)와 홈페이지(www.94st.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보청기 착용 연령대 낮아진다

최근 청소년 '소음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청각 기관의 장애로 발생하는 난청은 청력 저하 또는 손실된 상태를 말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귀를 혹사시킬 경우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나라 12세 이상 인구 중 15% 정도가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V나 핸드폰 통화 볼륨을 높이거나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하게 되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야 한다. 돌발성 난청이라면 약물을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난청이라면 청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보청기를 통해 청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덴마크 청각 솔루션 전문업체 오티콘보청기의 '네라(Nera)'는 최신 이나움(Inium) 칩셋이 탑재된 고급형 보청기로 초소형, 초절전, 향상된 메모리, 빠른 처리능력이 특징이다. 고객이 선호하는 소리를 선택하는 맞춤 조절이 가능하며 소리의 방향과 위치를 분별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케일', 웰빙 트렌드에 인기 상승

생으로 먹거나 즙으로 마시는 게 좋아

웰빙, 체질 개선 등의 건강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케일(kale)'이 인기 식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케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고의 채소'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평가될 만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케일은 채소 가운데 베타카로틴 성분 함량이 가장 많아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꼽힌다. 또 체질 개선의 제 1원소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과 비타민A, B1, B2, C, K, M, U 등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과 철분, 칼륨, 칼슘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칼로리 역시 100g에 16㎉에 불과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루이스 이그나로(Louis Ignarro) 노벨의학상 수상자는 장수의 비법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케일로 꼽았다. 호주의 건강주스 전도사 조 크로스(Joe Cross)가 케일로 만든 주스를 통해 40kg 가량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도 했다.

케일은 열을 가하면 항암 효과가 있는 엽록소, 비타민C 엽산 등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조리를 할 경우에는 5분 이상 익히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는 즙을 내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케일의 인기에 따라 케일로 만든 주스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전문점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로푸드(raw food) 셰프 경미니는 한남동에 다양한 로푸드와 함께 케일로 만든 주스와 요리를 만날 수 있는 '에너지 키친'을 오픈할 예정이다. 복합 문화 공간 카페 '알라카르테'에서는 케일을 주재료로 한 디톡스 음료 '리부팅 주스'를 판매 중이다.

직접 케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주서기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케일은 섬유질이 많아 주스로 만들기 힘들지만 잘 갈아서 과육을 걸러내 맑은 주스로 만들면 목 넘김이 좋아 마시기 좋다. 지난 4월 출시된 브레빌(breville)의 스피드 주서는 강력한 모터와 4단계의 미세필터를 통해 맑은 주스를 걸러내기 때문에 목 넘김이 좋은 케일 주스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illegible]기자

부부의 날, 애정지수 높이는 선물하세요

로맨틱 분위기·추억 떠올리는 제품 추천

5월 21일은 부부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자는 취지로 제정된 '부부의 날'이다.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21일.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의 취향에 맞는 선물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해 보자.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부부들만의 오붓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와인을 추천한다.

향초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을 들여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연애시절이나 결혼 후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 배우자와의 소중했던 추억을 선물할 수 있다.

세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외모가 변해가는 배우자를 위한 맞춤형 뷰티 아이템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하이모에서 판매 중인 '하이모 기프트 카드'는 가발은 물론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한 헤어케어 제품과 가발 관련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기프트카드는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는 배우자에게는 슬리밍 아이템을 선물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트리플 패키지' 성공한 집단 문화

우월감·불안함·자제력 통해 경쟁에서 생존

성공을 위한 가치관과 덕목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자기계발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트리플 패키지' 역시 그런 책 중의 하나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고 개개인을 분석해 '각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기계발서와는 다른 책이다.

그보다는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특정 인종·종교 집단특성을 통해 개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문화적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공의 문화를 가진 집단에 속한 개인이 왜 경쟁에서 살아남기 쉬운지를 알려준다.

두 저자는 모르몬교도·나이지리아계 미국인·중국계·유대계 등 여덟 집단을 성공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 집단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를 방대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트리플 패키지

에이미 추아·제드 러벤펠드/와이즈베리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주류 집단보다 우수하다는 믿음과 선민의식,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불안과 초조함, ▲절제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에서 큰 성공을 이뤘다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우월감·불안감·자제력. 이 '트리플 패키지'가 성공한 집단이 가진 문화라는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세 가지 요소는 따로 있을 때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한데 결합됐을 때 강력한 성공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만족하지 못한 채 탐욕을 낳고 우울과 좌절,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다.

사실 대다수가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개인에게 이런 세 가지 성공의 원쇠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저자들이 분석한 성공에 대한 아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해야 하는 자세는 우리 사회의 개인이 사회로부터 강요당하는 감정과 닮았다.

우리 사회는 늘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헌신하는 삶을 택했을 때 경쟁에서 생존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공이 곧 행복일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해은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특 속 한 컷 평범한 아빠 들의 특별한 고백

지난 일요일 오후 일산 호수공원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빼곡했다. 일정 동선을 한 바퀴 도는 4인 가족용 자전거가 인기다. 분명 페달은 두개인데 아빠만 열심히 밟고 있다. 엄마는 옆에서 따사로운 햇빛과 바람에 곤히 졸았었다. 한 가족이 자리한 돗자리에선 엄마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아빠는 자녀와의 몸추싸움에 얼을 올린다. 모처럼 만의 휴일에도 소파와 TV는 자녀와 아내를 위해 양보해야 하고 요즘 같이선 주말 나들이는 필수다. 햇볕이가 대세라 아내가 늦는 날이면 자녀와 함께 하는 저녁시간도 길어졌다.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아빠들의 표정은 밝아보이지 않을까. 대크서클이 짙어가는 아빠들에게 묻고 싶다. "아빠들은 언제 쉬어요?" – 세계 최고 아빠의 특별한 고백(라이브 끝날도/더숨) 중 –

/고혁철기자 kimc0104@

사랑의 순수함을 좇는 한 남자의 이야기

화제의 책

누군가 내 사랑을 노리고 있다

김정일/해조사

사랑, 결혼, 이혼, 재혼, 인생은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하기에도 벅찬 이 모든 걸 경험한 한 남자가 있다. 사랑에 목마르고 끊임없이 사랑의 달콤함을 갈망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까지 여자를 잘 몰라서일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이에 그 남자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정말 간단하게 답했다. "나는 사랑지상주의자"라고.

그렇다. 이 책의 저자 김정일은 순수한 믿음을 간직한 사랑을 원한다. 명문대 의대 출신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당대를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낙인찍혀 잠시 우리 곁을 떠났던 그가 드디어 사랑과 결혼에 대해 입을 연 것이다. 그것도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과 진실을 거침없이 꺼내면서 말이다.

더욱이 책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열렬히, 그리고 후회 없는 사랑을 하라고.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서의 성공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데에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사랑을 믿는 이 남자는 평생 바라고 원했던 순수한 사랑의 담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숨기거나 돌려 말하지 않는 이 남자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마음을 들어보자. 단언컨대 당신은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사랑, 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황재용기자 hcnu130@

새로 나온 책

정치·사회

뜨는 도시 지는 국가

벤자민 R. 바버/21세기북스

테러·반군, 총기, 기후변화 등 현재 직면한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국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 저자는 코스모폴리스의 시대를 주창하며 세계 주요 도시들이 '전 지구적 시장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는 국가보다 민첩하고 실용적인 단위로 다문화적·참여적·민주적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다.

여행

다시, 고향의 맛·멋

이재은/안도프레스

광시, 공주, 논산, 단양 등 충청도를 중심으로 20개 도시의 명소와 인물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맛집'을 탐방하는 책이다. 각 지방이 지닌 전설과 역사 이야기와 함께 도시의 진미를 만끽하는 여행서로, 향토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인문

동양철학 에세이2

김교빈/동녘

1993년 출간된 '동양철학 에세이'의 후속작이다. 전편에서 다뤘던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사상들이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이후 동양철학이 확립되면 주희, 탕종희, 모택동까지 이어지며 어떻게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의 철학으로 변모해 왔는지 보여준다.

한의학과 심리학의 만남

김락형·양은모/세창미디어

극과 극의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한의학과 심리학. 하지만 두 영역은 상당히 유사한 철학적 토대를 지녔다. 책은 한의학과 심리학이 만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인 정신건강을 말하고 있다.

자기계발

서바이벌 스토리

베어 그릴스/처음북스

인간은 세막, 바다, 정글 등 인간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조난을 당하고 또한 그것을 이겨낸다. 최고의 생존 전문가인 저자는 모험 정신과 기개 덕분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진정한 기개가 무엇인지, 위대한 인간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자제력

가오취엔/은행나무

저자는 자제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시간 관리를 꼽는다. 결심을 실행으로 바꾸는 원과 방법에 대해 책을 통해 소개한다. 이 같이 자제력과 관련된 18개의 키워드를 나열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조망해 미루는 습관, 무력감을 퇴치하는 법, 감정 다스리는 법 등을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소설

나는 알몸으로 춤을 추는 여자였다

릴리 보니/arte

음악에 몸을 맞춰 춤을 추고 사랑을 나누고 예술가로서 갈채를 받던 한 여자의 이야기다. 오로지 춤만을 생각하던 그녀는 생계와 육아를 위해 제2의 삶을 선택하고 춤을 갈망하며 자유를 향한 또 다른 몸짓을 시작한다.

시·에세이

내 남자 안아주기

김선희/비전과리더십

저자는 책을 통해 관계를 성숙시키는 여자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부부 클리닉 원장이자 부부상담가로 유명한 저자는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아내들이 놓치고 있는 남자들의 속은 심리에 대해서도 말한다. 삶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남편에게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안해 하는 아내들에게 추천한다. 당신의 남자는 새로운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이다.

경제·경영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이종기/참인출판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현장에서 세금 때문에 울고 웃어야 했던 사례들과 세금 문제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며 결코 세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의뢰받은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합법적인 절세 비법 53가지를 책을 통해 공개했다.

"함께 통쾌해 주세요"

SBS 아침드라마 '나만의 당신'의

이민영

배우 이민영(38)이 SBS 아침극 '나만의 당신'으로 복귀에 성공했다. 총 120부작 중 절반 이상이 방영된 '나만의 당신'은 이민영이 8년 만에 선택한 지상파 드라마다. 작품은 연일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아침 드라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돌아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6년 배우 이찬과 결혼한 후 2주 만에 이혼했고 유산·분배의 폭행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단아함이 강점이었던 이민영에게는 치명적인 시간이었다. '나만의 당신'으로 대중과 소통을 시작한 이민영을 20일 경기도 일산 SBS 제작센터에서 만났다.

8년 만에 지상파 복귀 데뷔 후 첫 복수극 연기 아주머니들 응원 큰 힘

◆ 이민영-고은정, 소녀같은 배우

드라마는 구두닦이로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딸 고은정(이민영)이 야망에 눈이 먼 강성재(송재희)가 일으킨 끔찍한 사고에 휘말린 뒤 역경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극중 이민영은 착하고 곱게 자란 고은정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시댁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핍박 받으며 쫓겨나기까지 하는 인물이다. "유난히 고생스러웠던 장면이 많았어요. 시댁에서 버려지거나 강성재에게 수모를 당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는 올 초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 제작발표회에서 "나와 닮은 점이 많은 인물"이라며 "나 역시 3남매로 자랐고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배역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5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함께 연기 중인 배우 정성환과 송재희는 이민영이 고은정과 매우 비슷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악연인 전 남편 강성재 역을 맡은 송재희는 "착하고 자상하다. 소녀 같고 해맑다"며 "연기자로선 대선배지만 조언을 구하면 자상하게 잘 알려준다"고 했다.

작품에서 현재 남편으로 출연 중인 허준하 역의 정성환도 "낯가림이 심해서 상대 배우와 조심스럽게 지내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그런데 이민영씨와는 극 초반부터 정말 편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연기 호흡을 자랑했다.

◆ 처음 맺본 복수극 통쾌

이민영은 '나만의 당신'이 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 드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진심을 담아 소감을 전했다.

"예전엔 작품을 해도 친구들이 '잘 본다' 정도로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의 전개를 물어보는 등 적극 적이고 구체적으로 궁금해 해요.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구경하던 아주머니들이 '파이팅'하라고 응원도 해주고 '통쾌하다'고 함께 기뻐해 주기도 하죠."

그는 이 같은 인기가 작가 덕분이라고 말했다.

"작가님이 대본을 늦게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배우들이 준비할 수 있게 배려해 주죠. 또 엄청난 사건들을 펼쳐 놓아도 하나의 정점을 향해 짜임새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막장 드라마의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자극적인 건 도구일 뿐이에요. '나만의 당신'은 스릴러 멜로 액션·공포·코믹 등 여러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민영은 1994년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나만의 당신'은 활동 후 처음 선택한 복수극이다. 그는 "감회가 새롭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는 건 데뷔 후 처음"이라며 "도전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자극적인 내용이 많다. 그러나 일상에서 고은정의 복수를 보면서 함께 통쾌해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양현석 10억 기부 재단설립

불우청소년·어린이 돕기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불우 청소년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사재 10억원을 기부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일 회사 창립 18주년을 맞아 양 대표의 숙원 사업인 비영리 재단법인 '우주 YG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어린이들을 적극 돕겠다는 양 대표의 강한 의지에 따라 재단이 출범하게 됐다.

양현석

'우주 YG재단'의 '우주(宇宙)'는 '끝이 없다', 주인이 없다는 뜻으로 현재와 미래를 향해 변화와 혁신을 끝없이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양 대표는 "이제서야 재단이 설립돼 기부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재단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YG재단'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 최근 등기가 완료됐다. 앞으로는 재단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양 대표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 결손 가정 청소년과 어린이의 치료, 재활과 학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YG는 재단 설립 이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션·정혜영 부부의 꾸준한 자선 활동을 비롯해 2009년 빅뱅·2NE1 등 소속 가수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한 사내 자선 프로그램인 'YG 위드 캠페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심장병 환자를 돕는 드림 기프트 캠페인 지원 등을 해왔다.

/송순호기자

자유로운 여인 유부녀 이효리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자유로운 여인의 매력을 발산했다. 그는 최근 여성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커스텀, 패션 매거진 그라치아와 함께 패션 화보를 촬영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촬영한 이효리는 자유분방하고 트렌디한 패션과 강렬한 메이크업으로 특유의 섹시하고 당당한 매력을 드러냈다.

/명형운기자

윤하-정준영

아이유-김창완

'썸'같은 듀엣 잘나가네…

솔로+그룹에서 솔로+솔로 조합 변화
윤하-정준영·아이유-김창완 입맞춤

윤하-정준영, 아이유-김창완

그룹 시스타와 정기고의 '썸' 열풍 때문일까. 최근 가요계에 듀엣 바람이 불고 있다.

올 상반기 '썸'으로 돌풍을 일으킨 소유와 정기고의 시너지 효과로 가요계에 듀엣 바람이 거세다. 지난 3월 남성 듀오 이천원이 발표한 데뷔 싱글 '뷰티풀'에는 에일리가 참여했다. 이어 다이나믹 듀오 최자와 김예림이 '라스트 신'을 발표하며 듀엣 열풍에 합류했다.

여기에 걸스데이 소진도 위탄가수 크루셜스타의 싱글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의 객원보컬로 참여해 주목받았다.

모두 솔로 가수와 그룹 멤버의 조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음악적 색깔이 뚜렷한 솔로 가수들의 만남이 예고돼 주목받고 있다.

바로 여성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윤하와 '슈퍼스타K' 출신 가수 정준영의 만남이다.

가요계 단짝으로 알려진 윤하와 정준영은 오는 29일 듀엣곡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준영과 윤하가 발표하는 이번 듀엣 곡은 록 색채가 짙은 곡이다. 두 사람이 애정을 갖고 있는 장르인 데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따뜻한 가사가 돋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렴구에 강하게 터지는 정준영과 윤하의 목소리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깊은 감동을 줄 예정이다.

또 가수 아이유도 30년 대선배 김창완과의 듀엣곡 '너의 의미'를 공개해 주목된다. '너의 의미'는 한국 그룹사운드의 선구자인 밴드 산울림의 곡을 재해석했다. 아이유 버전의 '너의 의미'에는 산울림의 보컬이었던 김창완이 보컬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작업부터 피처링까지 곡 전반에 걸쳐 참여했다. 아이유는 지난 15일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를 발매했다. '너의 의미'를 비롯해 타이틀곡 '나의 옛날이야기', '꽃',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등 7곡이 수록돼 음원차트 줄세우기를 기록하며 '아이유 파워'를 과시했다.

/윤하운기자 yoo@metroseoul.co.kr

싸이·마룬파이브 상암 배틀

빌보드 라이벌 월드컵경기장서 공연

빌보드 라이벌인 마룬파이브(왼쪽 사진)와 싸이(오른쪽)가 올 여름 국내 무대에 나란히 선다.

이들은 8월 9~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2014'에 출연한다.

마룬파이브는 감성적이고 세련된 음악 스타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5인조 록 밴드다. 이 밴드는 2002년 데뷔 앨범 수록곡 '디스 러브'를 2011년 '무브스 라이크 재거'를 빅히트 시켰다. 2012년에는 '원 모어 나이트'로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인기 경쟁을 벌였고, 싸이는 마룬파이브에 막혀 7주 연속 빌보드 2위에 머물렀다.

싸이는 이번 공연에서 80여분 간 단독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새 앨범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싸이는 지난해 4월 '젠틀맨'을 발표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같은 무대에서 국내 팬들과 만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2년 전 빌보드 정상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마룬파이브와 싸이가 다시 만나 어떤 무대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20일 현대카드가 발표한 '시티브레이크' 1차 라인업에는 록 그룹 본조비의 유명 기타리스트 리치 샘보라의 이름도 올랐다. 그는 솔로 뮤지션으로 참가해 본조비의 히트곡과 다양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국내 유지션은 어쿠와 넘어 1차 라인업에 포함됐다. /송순호기자 sune@

마룬파이브

싸이

볼만한 '19금' 한국영화 몰려온다

톱스타·작품성으로 무장한 '인간중독' '우는 남자' 개봉

극장가에 볼만한 '19금' 한국영화가 몰려오고 있다.

송승헌 주연의 '인간중독'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를 대표하는 톱스타들이 출연한데다 작품성까지 갖춘 영화들이 속속 개봉돼 흥행 성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관객을 찾는 19금 기대작은 '도희야'(22일 개봉)다. 바닷가 마을에 좌천돼 내려온 파출소장 영남(배두나)이 폭행에 홀로 노출된 14세 소녀 도희(김새론)와 만나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다.

국내에선 폭력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제67회 칸 영화제의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되는 등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개봉 전부터 영화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는 남자'(다음달 4일 개봉)는 한국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역대 19금 영화 흥행 성적 3위에 오른 원빈 주연의 '아저씨'를 연출한 이정범 감독의 차기작이다. 전작에서 원빈과 호흡을 맞췄던 이 감독이 이번에는 장동건과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킬러 곤(장동건)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목표물 모경(김민희)을 만나고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제작진은 20일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한국에서 표현된 적 없는 리얼한 총기 액션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하이힐'(다음달 개봉)은 19금 느와르를 표방했다. 내면의 여성적인 자아로 남몰래 고뇌하는 강력계 형사 지욱(차승원)이 운명을 뒤바꿀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충무로 대표 스토리텔러인 장진 감독의 느와르 도전작이다. 차승원이 극중 여장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역대 19금 영화 흥행 1~4위는 '친구'(818만명), '타짜'(684만명), '아저씨'(622만명), '추격자'(507만명)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배두나·짐 스터게스 열애 인정

칸 영화제 '도희야' 상영회서 다정한 모습 포착

배우 배두나가 할리우드 배우 짐 스터게스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배두나는 20일 프랑스 칸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파빌리온 부스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짐 스터게스는 남자친구다"라고 밝혔다.

이전에 소속사가 열애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선 "친한 친구라는 말은 전 매니저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친구(짐 스터게스)가 '도희야'를 보고 많이 감동했던 것 같다. 세 배우 다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영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짐 스터게스가 19일 칸 드뷔시 극장에서 열린 영화 '도희야' 공식상영회에 깜짝 등장해 배두나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짐 스터게스(오른쪽)가 '도희야' 시사회에서 배두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날 배두나는 짐 스터게스와 손을 잡고 인사했고 나란히 앉아 영화를 감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호흡을 맞춘 뒤 열애설에 휩싸였다.

/박지원기자

'군도' 하정우 극과 극 매력

백정에서 의적으로 거듭나는 역할 열연

배우 하정우가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이하 '군도')에서 극과 극의 매력을 동시에 선보인다.

하정우는 극중 단순무식하고 힘센 백정 돌무치(사진 왼쪽)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의적인 쌍칼 도치(오른쪽)로 거듭 나는 역할을 맡았다.

돌무치는 소, 돼지를 잡아 고기를 양반들 집에 대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백정이다. 양반은 물론 양민들에게까지 천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당연히 여긴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후 의적 도치로 거듭나고 쌍칼을 휘두르며 양반들을 두렵게 한다.

하정우는 외모와 분위기에서 돌무치와 도치를 차별화했다. 돌무치일 때는 더벅머리를 한 채 납작 조아리는 연기를 펼쳤고, 도치일 때는 화상 자국이 뚜렷한 민머리를 한 채 강렬한 눈빛을 쏘았다.

'군도'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는 의적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활극으로 7월 23일 개봉한다. 하정우를 비롯해 강동원·이성민·조진웅·마동석·정만식·김성균·이경영 등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박지원기자

자우림·김예림 '뮤직매터스' 출연

亞 최대 음악마켓서 K-팝 쇼케이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3일 아시아 최대 음악마켓인 '뮤직매터스'에서 'K-팝 나이트 아웃'을 개최한다.

2009년 싱가포르에서 창설된 '뮤직매터스'는 유럽 최대 음악마켓인 미뎀, 북미 최대 음악마켓인 SXSW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마켓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유럽 각국의 음반·공연 관계자와 뮤지션 등이 컨퍼런스와 쇼케이스에 참석하는 'K-팝 나이트 아웃'은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다.

자우림

올해 행사에는 자우림과 데이브레이크 등 실력파 밴드를 비롯해 대형 신인 김예림, 올해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에 초청받은 술탄오브더디스코, 3인조 록 그룹 아시안체어샷 등 5개 팀이 참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쇼케이스는 전 세계 음악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알리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며 "유튜브, 대형기획사 중심의 해외 시장 개척을 넘어 쇼케이스를 활용해 K-팝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호기자 sunon

"홍 감독, 단디 하이소~"

역대 월드컵 사령탑, 브라질 대표팀 응원 메시지

역대 월드컵을 수놓았던 사령탑들이 브라질에서 대표팀의 선전을 확신했다.

김정남 이회택·김호 차범근·허정무·조광래 전 감독과 홍명보 현 감독은 20일 파주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오찬행사에 참석했다. 역대 대표팀 감독들은 "감독의 자신감이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홍 감독이 자신 있게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응원을 보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출전한 김정남 감독은 "많이 떨렸다. 지금 대표팀은 감코들과 충분히 매울 만한 전력을 가졌다. 16강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회택 감독은 "홍 감독은 항상 운을 가지고 다니는 사나이다. 마지막 점검과 준비를 잘해서 사국이 어려울 때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자를 응원했다.

이 감독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 전까지 부상을 조심하는 것이다. 최대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감독에 맞설 전략을 조언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대표팀을 맡았던 김호 감독은 "우리 선수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수비 전환이 늦다는 점이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전진 압박이 상당히 빠르다"며 "전방에서 5~10m씩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 2m라도 지연시켜 주면 수비가 정돈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범근 감독은 동메달을 획득했던 2012 런던 올림픽에서와 같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광래 감독은 "유럽에서 경험을 갖춘 선수가 많아 홍 감독이 요구하는 경기 운영에 잘 적응할 것이다. 홍 감독, 단디 하이소"라며 강한 신뢰를 보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룬 허정무 감독은 "역대 대표팀 사상 가장 강력한 미드필드진이다. 공수 세트피스를 보완하고 수비를 가다듬는다면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선배들의 격려를 받고 "선배 감독님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후배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을 잘 명심해서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순호 기자 suno@metroseoul.co.kr

박지성 축구 고향서 마무리

에인트호번 선수로 수원서 마지막 경기

'영원한 캡틴' 박지성(33·PSV 에인트호번)이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그의 축구 고향인 수원에서다.

에인트호번은 22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의 명가 수원 삼성과 친선전을 갖는다. 24일 이어지는 경남FC와의 두 번째 친선전까지 끝나면 박지성이 클럽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6월과 7월 박지성이 주최하는 자선경기가 열리지만 프로선수로서 갖는 고별 무대는 이번 두 경기가 마지막이다.

특히 수원은 그가 축구 선수로 대성할 기틀을 다진 곳이어서 감회가 새롭다. 박지성은 서울 태생이지만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수원 세류초등학교와 화성 안용중학교, 수원공고를 거치며 기본기를 갈고 닦았다.

박지성은 11년 만에 마지막으로 국내 팬들 앞에서 뛰는 무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각오다. 그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에인트호번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다. 11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성훈 기자

대 월드컵대표팀 – 감독 초청 오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역대 월드컵대표팀 감독들이 20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했다. 왼쪽부터 차범근·김정남 전 감독, 정 회장, 홍 감독, 이회택·김호·허정무·조광래 전 감독 /연합뉴스

메시 세계 축구계 가장 비싼 몸

연봉 조정 280억원으로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7·사진)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축구 스타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와 수정된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것을 밝히게 되어 기쁘다"고 20일 밝혔다. 애초 메시는 2017~2018시즌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기로 했다. 이번 계약 기간은 수정하지 않고 연봉만 조정됐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메시는 이제 연봉 2000만 유로(약 280억원)를 받는다. 옛 계약에서는 연봉이 1300만 유로(약 18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메시는 세계 최고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가 됐다. 이전까지 최고 연봉자는 1700만 유로(약 238억원)를 받는다고 알려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였다. /장성훈 기자

무너진 마운드… "내가 일으킨다"

류현진 몸상태 최상 다저스 선발 공헌 자신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복귀전인 뉴욕 메츠전을 앞두고 몸 상태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류현진은 20일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을 통해 "추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좋다"며 "부상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어깨 운동이 필요한 것 뿐이다.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공을 던지면서 어떤 한계도 없다"고 자신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28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을 마친 뒤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휴식에 들어갔고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이 빠진 LA 선발진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류현진 대신 선발진에 합류한 폴 마홈은 올시즌 1승4패 평균자책점 5.40으로 부진했다. 특히 류현진 대신 선발로 나선 5월 3경기에서는 승리 없이 2패만을 떠안았고 평균자책점도 6.46이나 되는 등 불안했다.

류현진은 "부상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이 무너진 것을 느꼈다"며 "이제 내가 돌아왔다. 팀에 공헌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한편 부상을 털어낸 류현진은 오는 22일 뉴욕 메츠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복귀전을 치른다.

/장소윤 기자 yssw@

프로야구 전적 20일

■ 포항

팀				R
롯데	000	000	002	2
삼성	001	032	01X	7

[illegible]

■ 목동

팀				R
한화	000	010	000	1
넥센	010	110	00X	3

[illegible]

■ 광주

팀				R
LG	001	003	300	7
KIA	010	050	22X	10

[illegible]

■ 마산

팀				R
SK	100	000	010	2
NC	010	004	03X	8

[illegible]